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정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예레 20,7-9

화답송 | 시편 63(62),2.3-4.5-6.8-9(◎ 2ㄷ 참조)



(후렴) 주 - 님, 저의 하느님, 제영혼당신을 목말라-하나이 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12,1-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6,21-27

영성체송 |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성가 | 입당 58 예물준비 237(219)
영성체 167(198) 파견 3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전복저 아가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이남석 베드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지경임 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박요한 사도요한
- 박금련 데레사의 영혼을 위하여
- 한주천 모니카
- Dorothy Davis 영혼의 안식을 위해(1)
- Dorothy Davis 영혼의 안식을 위해(2)

생미사 지향

- 이장학 토마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 황다온 루치아 2돌 생일 축하
- 김윤아 에밀리아, 방상욱 베드로, 문혜정 스텔라 생일 축하
- 백종윤 아기
- 조하나 이레나, 최경수 사도 요한의 아기 최다인 탄생 축하

- 박익자 마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최종원 알버트&이예나
- 진승환 토마스모어&김수현 실비아
- 김재언 스테파노, 박효순 마틸다
- 한미영 안나 생일 축하
- 이서현 엘리사벳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송영희 스콜라스티카 생신 축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8월 30일	국민준	정은철	이경자	정은철 이경자	이영혜 정다경	김민서 최예준
9월 6일	백이백	민완준	민덕미	민완준 민덕미	김종선 진서윤	이예진 김민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사목회 & 각 단체장 간담회

일시: 오늘, 11:00AM-2:00PM(간단한 점심 제공)

장소: 산 다미아노 홀

참석대상: 사목회 위원, 각 단체장

2027년 달력 광고비 납부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광고를 신청하신 분들은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납부처: 재무 데스크

*광고가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seoulsb@gmail.com(Sr. 마리루시)로 보내 주십시오.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

9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과 부모, 형제, 친척, 은인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양식서>를 작성하고 접수(연령회)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위령미사 : 9/27(주일) 9:15, 대성전

함께하는 성경읽기: 마르코복음

기간: 9/8(화) - 12/8(화)

시간/장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담당: Sr. 마리루시

신청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선착순 마감(12명)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

주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일시: 9/18(금) - 9/20(주일) (2박 3일)

장소: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참가비: \$330

신청마감: 8월 30일(오늘)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중 빈첸시오)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9월 12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주일)- 2027년 3/28(주일)

시간/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코

(본당행사일정에 따라 장소 변동 가능)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견진성사를 이미 받은 분들 중 대부/대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646-832-7397(Sr. 마리루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청년성서 가을학기 모집

(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청년

신청 마감: 9월 13일(주일)까지

첫모임: 9/27(주일) 12:00PM, 프란시스코

문의: 714-809-9874. 카톡 sunwouk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오늘의 말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태 16,23)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서석봉 안드레아
(? -1816)

서석봉(徐碩奉) 안드레아는 1816년 대구에서 순교한 구성열 바르바라의 남편이며, 1815년 대구에서 옥사한 최봉한 프란치스코의 장인이다. 훗날 신자들 사이에서는 '손골(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박씨(朴氏)의 외조부'로 전해졌다. 서 안드레아의 출생지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과부였던 구 바르바라와 혼인한 그는 사위

최 프란치스코 부부와 함께 교우들이 모여 살던 경상도 청송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1815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밀고자를 앞세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경주 진영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이후 아내와 사위 등과 함께 대구 감영으로 이송된 그는 거듭되는 형벌에도 백절불굴의 항구심으로 신앙을 지켰다. 동료들과 함께 1815년 11월 18일(음력 10월 18일) 사형 선고 받은 그는 형벌로 쇠약해져 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 순교하였다. 당시 대구 감사의 사형 선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서석봉과 구성열 부부는 함께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누워 칠 줄을 모른다."

성화-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8, 가해, 2026. 08.30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첫 구절은 강력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저는 처음 저 문장을 읽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삶 안에서 확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가운데서 마음과 삶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사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 기쁨이 가득한가 돌아보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우리 삶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분명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은 이를 보여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구원이 인간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언제나 강조하고 특히 로마서에서 이 점을 역설하지만, 그의 서간들은 먼저 이러한 교리를 설명한 다음, 뒷부분에서는 신자들의 삶을 위한 권고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로마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12-16장에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어떤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이 구원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다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쁨이 마음과 삶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된 삶이라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짧게 말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특별히 눈에 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누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세세한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현세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12장 후반부터는 여러 가지 더 실천적인 가르침들이 제시됩니다. 선, 평화, 기쁨 같은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코린토 서간에서 크게 강조될 공동체의 일치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로마 15,1). 코린토 1서 8장에서는 음식 규정을 예로 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로 볼 때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고(로마 14,15),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로마 15,7).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쁨, 평화, 선, 일치,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것입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96, 2026. 08월 16일



김옥순 수녀의 <십자가 사랑하기>

* 출처: <하늘마음>, NO2260, 2026년 8월 30일.

< 이탈리아 성지 순례 >

주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 * 일시: 2026년 11월 2일 ~ 11일 (9박 10일)
- * 순례지: 이탈리아
(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 비용: \$ 3,000 + 항공료 + 공동경비 € 100